

# 잊혀진 책들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

## 출판계 복간 열풍 급속도로 확산... 좋은 책 되살리는 것 바람직해

서점가에 사라진 책들이 부활하고 있다. 헌책방이나 출판사의 창고, 독서가의 서재에서 먼지를 뒤집어쓴 채 겨우 명맥만 유지하던 절판·품절도서들이 복간되고 있는 것이다. 주로 70~80년대에 출간되었던 책들로서 출판유통의 단명성과 출판시장의 유동성, 그리고 출판사의 영세성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퇴장했던 책들이다. 새 생명을 되찾은 이 책들은 산뜻한 표지장정과 깔끔한 편집, 한글세대에 맞춘 문체와 호흡을 수혈받아 새 생명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신규 투자의 모험을 즐기면서 검증된 좋은 책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출판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복간도서들은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출판사 자체가 사라져버리거나 절판된 책을 다른 출판사에서 재출간하는 경우와 동일 출판사에서 개정판을 내는 경우가 그것. 또한 번역서는 역자가 동일한 경우와 새롭게 번역한 경우로도 나눌 수 있다.

### 고전적 가치 높은 저작 위주로 복간

지난달 출간된 《장강일기》(학민사)와 《문명과 질병으로 보는 인간의 역사》(한울림)는 가장 비근한 사례. 여성독립운동가 정정화의 일대기를 그린 《장강일기》는 지난 87년 도서출판 미완에서 《녹두꽃》이란 이름으로 나왔다. 중국대륙에서 망명정부와 함께 청춘을 바치고 해방 후 조국에 돌아왔으나 6·25전쟁 때 부역죄로 투옥되는 등 한국현대사와 함께한 파란의 생애를 증언한다.

지난 91년 동지에서 발행한 《재미있는 질병과 인간의 역사》의 개정판인 《문명과 질병으로 보는 인간의 역사》는 한울림이 '동지'의 판권을 인수하면서 재출간했다. 서울대 의대 황상의 교수가 초판본의 오류를 바로잡고 내용을 보충했다. 질병의 사회사를 추적한 이 책은 문명사에 등장한 역병이 문명과 사회의 개혁에 의해 제압되어왔다는 것을 입증한다.

복간된 책들은 주로 번역서인데 고전적 저작이거나 그 주제나 학문분야, 저자 등이 새롭게 주목받는 경우가 많다. 지난 7월에 출간된 《어느 정치적 인간의 초상》(리브로, 강희영 옮김)은 저자 슈테판 츠바이크의 유명세에 힘입은 경우. 분도출판사에서 77년 《어느 정치적 인간의 초상: 요셉 푸우셰》(강희영 옮김)로 출간되었던 이 책은 프랑스 혁명기와 제정시대의 음산한 모사가 푸체를

### 서점가에 사라진 책들이

부활하고 있다. 주로 70~80년대에

나왔던 책들 가운데 본의 아니게

퇴장한 책들이 산뜻한 표지 장정과

깔끔한 편집, 한글세대에 맞춘

문체와 호흡을 수혈받아 새

생명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신규

투자의 모험을 즐기면서 검증된

좋은 책을 되살린다는 점에서

출판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죽음을 초월해서 자신에서 충실한 인간으로 재평가한 츠바이크의 필력이 돋보인다.

고전적 저작으로 복간된 것으로는 레비스트로스의 《슬픈 열대》(한길사, 박옥줄 옮김), 에드거 앨런 포의 《아서 고든 핼의 모험》(황금가지, 김성곤 옮김), 프란츠 파농의 《검은 피부, 하얀 가면》(인간사랑, 이석호 옮김), 칼 마르크스의 《정치경제학 비판을 위하여》(청사, 김호균 옮김) 등을 들 수 있다.

구조주의 인류학의 고전인 《슬픈 열대》는 82년 초판본인 삼성출판사의 《삼성세계사상》에서 한길사의 《한길그레이트북스》로, 환상소설의 고전으로 꼽히는 《아서 고든 핼의 모험》은 83년 마당문고사의 《마당문고》인 《넌터킷의 아더 고든 핼 이야기》(김진욱 옮김)에서 황금가지의 《환상문학전집》으로 편입되었다.

‘식민주의 심리학’의 고전인 파농의 저서는 78년 《자기의 땅에서 유배당한 자들》(김남주 옮김)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 시대》의 책읽기’라는 부제를 달고 새롭게 번역되었다. 88년 중원문화사에서 나온 마르크스의 저서는 그대로 청사에서 나왔다. 특히 레비스트로스와 포, 그리고 파농의 저서는 각각 인류학과 환상문학, 그리고 탈식민주의 담론의 부흥에 따라 호출된 것이 특징.

지난해 말 열린책들에서 《프로이트 전집》이 완간된 후 올해 3월에 프로이트 관련서 두권이 나란히 다시 선보였다. 책 스펙터의 《프로이트 예술미학》(풀빛)과 바흐첸·블로쉬노프의 《새로운 프로이트》(예문)가 그것.



본의 아니게 사라진 책들이 최근 다시 복간되고 있다.

81년과 89년에 각각 발행된 이 책들은 절판되었다가 다시 독자를 만난 경우로, 《새로운 프로이트》의 초판본 제목은 《프로이트주의》였다.

### 영화와 유전공학의 관심도 반영

복제양 ‘돌리’가 출현하면서 유전공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것과 맞물려 데이비드 로비크의 《복제인간》(사이언스북스, 박상철 옮김)도 합법적으로 ‘복제’되었다. 20년 전에 복제인간의 출현을 예측했던 이 책은 78년 홍성사에서 같은 제목으로 출간된 것을 최근 해외 저작권을 체결하고 리바이벌한 것.

영화라는 대중매체의 영향도 복간열기에 기여했다. 지난 7월 월트 디즈니의 만화영화 《물란》의 제작·개봉과 페미니즘의 득세에 맞춰 맥신 흥 킹스틴의 《여전사》(황금가지, 서숙 옮김)가 재등장했다. 여전사 화무란의 신화를 주요 모티프로 삼은 이 책은 81년에 나온 후 절판된 《여인무사》(민음사)의 개정판이다.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티베트에서의 7년》은 그 원작인 하인리히 하러의 《티베트에서의 7년》(황금가지, 박계수 옮김)에 반영되었다. 89년에 출간된 수문출판사의 같은 제목의 책(한영탁 옮김)을 완역한 것이다.

시인들의 초기작품도 복원되고 있다. 문학동네의 《포에지 2000시리즈》가 그것으로 이미 절판되어버린 현역시인들의 초기작품을 모았다. 지금까지 황동규의 《비가》, 김혜순의

《어느 별의 지옥》, 안도현의 《서울로 가는 전봉준》 등 18권이 나온 상태다.

복간본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사이언스북스는 리처드 P. 파인만의 《파인만씨, 농담도 잘 하시네요》(안국출판사, 김재삼 외 옮김, 87년)와 칼 세이건의 《집착》(햇빛출판사, 이성규 외 옮김, 85년)을, 눈빛은 지젤 프로이트의 《사진과 사회》(홍성신서, 성완경 옮김, 78년)를 되살린다.

한길사는 《오늘의 사상신서》에 올라 있던 흡스봄의 《혁명의 시대》(차명수 옮김, 84년)·《자본의 시대》(정도영 옮김, 83년)를 《그레이트북스》로 새롭게 단장하고, 한스 마르틴 자스의 《포이에르바흐》(문학과지성사, 정문길 옮김, 86년 초판)와 클라우스 바겐바하의 《카프카》(기린원, 전영애 옮김, 90년 초판) 등도 출판사의 동의를 얻어 《로로》 시리즈로 이적한다.

이처럼 출판가에 복간열풍이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문예출판사의 전병석 사장은 “활자조판에서 전산사식으로의 기계적 변화, 저작권 계약체결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가중, 독자세대의 변천에 따른 새로운 수요 창출” 등의 요인을 꼽는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출판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푸른숲의 김학원 주장은 “사회가 정체되거나 전망이 불투명할 때 복고적인 경향이 우세해진다”며 “신규투자에 대한 모험을 즐기면서 독자들에게 이미 검증되었던 좋은 책들을 되살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말한다.

— 박천홍 기자